

공동체 소식



사순 제5주일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사순시기 안내

- 사순시기의 의미 : 재의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참회와 극기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루는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 사순시기 동안 주일미사 40분 전에 시작합니다.

성주간 전례 안내

- 3/25(일) 오전 11:00, 주님 수난 성지 주일(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미사)
- 3/27(화) 오전 11:00, 교구 성유축성미사(본당 저녁미사 없음)
- 3/29(목) 저녁 8:00, 주님 만찬 성목요일(미사-가난한 이들을 위한 2차 헌금,발씻김 예절, 미사 후 성체조배)
- 3/30(금) 오전 10:00, 십자가의 길 기도, 저녁 8:00,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절(예루살렘 성지복구 헌금, 십자가 경배)
- 3/31(토) 저녁 8:00,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 4/ 1(일) 오전 11:00, 예수 부활 대축일(라이스보울 봉헌)
- ※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후, 성체조배 신청을 받습니다.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월정기회의

- 일시: 3/25(주일), 교중미사 후.

부활절 맞이 성당 대청소

- 일시 : 3/25(주일) 교중 미사 후, 식사 전.

부활 대축일 전례꽃 봉헌 안내

- 내용: 전례부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3/18)	118	215	500	121
차 주 (3/25)	122	221	169	123

전례 봉사자 및 복사

	해설자	제1독서	시중 복사
		제2독서	항 복사
금 주 (3/18)	김대연 요셉	박태주 로마노	차민서 임마누엘
		김명희 리드비나	이원준 요한
차 주 (3/25)	박태주 로마노	강영진 라파엘	김정원 안젤라
		한춘희 라파엘라	고평원프란치스코

애찬 봉사자

금 주	김말자, 김화년, 안현숙
차 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헌금 봉사자

금 주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차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라우렌시오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3/11	30 명	150 달러	1,310 달러
김정원, 김호원, 김진미, 강영진, 이우석, 전용진, 한봉경 (총 7 세대)			

사순 제5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2코린 4,18-

2018년 3월 18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in Kansas C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성자께서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세우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구원을 주시는 성자의 수난과 죽음에 참여하여, 하느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림 묵상

‘불멸의 밀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한 알의 씨앗이 썩어 맺은 열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겨낸 아름다운 그 순간, 불멸을 상징하는 공작새가 이를 지켜봅니다.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순 시기에 우리도 기꺼이 밀알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림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1,31-34

<나는 새 계약을 맺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화답송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제 2 독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5,7-9

<예수님께서서는 순종을 배우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20-33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 생명의 말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길을 오가는 이들의 가벼워진 옷차림과 밝아진 표정을 보니 이제는 정말 봄인가 봅니다. 신학교 교정도 곧 싱그러운 봄 향기에 물들겠지요. 곳곳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들과 푸릇푸릇한 싹들, 그리고 그 속을 온통 헤집고 다니는 하늘이와 사랑이(신학교에 거주하는 두 마리의 귀엽고 온순한 리트리버입니다)가 한데 어우러져 빛어내는 신학교의 봄 정취는, 생각만으로도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신학교 교정을 산책하다가 여기저기 피어난 꽃들과 나무들을 보면 신기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언뜻 보면 모래알갱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조그맣고 딱딱한 씨앗에서도 대체 무슨 조화로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과 우람한 나무들이 나왔을까 하고 생각하면, 그 생물학적인 설명과는 별개로, 이 조그만 씨앗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손길이 경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밀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온기를 거의 느낄 수 없는 그 메마르고 조그만 것을 흔에 파묻고 물을 주기만 하면 어느 순간엔가 싹이 트고 자라나 큰 줄기를 이루게 되고, 마침내는 수십 배의 열매가 그 위에 영글어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지.

하지만 밀알 하나가 꽃피워내는 이 생명의 신비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밀알 자신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단단한 껍질,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그 믿음직한 보호막이 속수무책으로 해체되는 두렵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밀알은 결코 자신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생명의 힘을 고집어낼 수 없습니다. 고집스럽게 껍질 안에 숨어 전전긍긍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밀알은 결코 '밀의 씨'라는 진정한 자아를 만나지 못하고 무생물도 생물도 아닌 메마른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다 허무하게 스러져갈 것입니다.

아집과 교만에 사로잡혀 나 자신을 놓지 못하고 하느님의 손길에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싹을 틔우지 못하고 씨앗으로만 머물러 있는 밀알과도 같습니다. 자기합리화와 지나친 자기애, 그리고 안락함의 추구가 여러겹의 껍질이 되어 나를 단단히 감싸고, 그 안에 갇힌

나는 공허한 자기 위안에 사로잡혀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며 하느님을 만나지도, 진정한 나를 깨닫지도 못하니,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총만한 삶의 모습일까요.

은혜로운 회개의 때인 사순 시기가 이제 절정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아프고 부끄럽겠지만, 자신을 감싸고 있던 위선과 자기변명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선다면, 그분은 우리의 회개를 값진 화해의 선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바로 그 화해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싹이 트고 자라게 될 것 입니다.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최영심 작)

☞ 성경풀이

예루살렘과 유다 광야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꼽으라면 단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 말 안에는 '평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그곳의 여부스족을 점령한 이후로(2사무 5,6-12)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데 실제로 높은 곳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미터 정도의 높이에 위치해 있어서 적들의 침략을 방어하기에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무역에는 불리한 지형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무엇보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지상 거처이자 현존의 장소인 성전은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 하느님과 화해하는 종교의 핵심적인 장소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루살렘은 구약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세상의 중심'(에제 38,12)이나 '거룩한 도시'(이사 52,1)로 불리거나 마지막 날에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장소로 언급됩니다.(즈카 14,8 참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자주 방문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며 죽음과 부활이 이뤄진 장소입니다. 또한 초기 공동체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삶

이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향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은 교회를 통해 바로 그곳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자주 표현되는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 지역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은 유대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유다 지역을 말할 때 특징이 되는 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는 이들은 많은 경우에 광야 지역을 통한 경로를 가게 됩니다. 광야는 높은 고원과 협곡을 지니고 있으며 급격한 지형의 변화와 일교차가 큰 날씨가 특징입니다.

성경 역시 광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며 이때의 기억은 하느님 체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광야는 세례자 요한이 사명을 준비하며 회개를 선포한 곳으로 표현되고(마태 3,1) 예수님 역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며 유혹을 받으신 곳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받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광야지만 성경은 그곳에서 오히려 하느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예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교리상식

교리상식

사순 시기에도 부활은 계속된다고요?

주님 부활 대축일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주님 부활 대축일 이외의 다른 주일을 작은 부활 축일로 지냅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날의 기쁨을 연장하고, 반복, 재현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주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날이기에, 고행과 극기도 중지하고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이렇게 고행과 극기, 참회의 보속의 때로 여겨지는 사순 시기라 해도 그 기간에 있는 주일은 작은 부활 축일이라는 것입니다.

교리상식 속풀이 | 바오로말 발행